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봄맞이 횡계3리 환경 정화

✎ 우정연 기자 | ☎ 승인 2025.04.09 15:35

지역 주민 50명·공단 직원 25명 겨우내 묵은 때 청소



횡계3리 환경정화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연 기자] 강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주민 교류와 환경경영의 하나로 '횡계3리 봄맞이 합동 대청소'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눈마을 횡계3리 주민 50명과 공단 직원 25명이 참여한 횡계3리를 가로지르는 농어촌도로 중심으로 겨우내 하천·도로변에 쌓인 쓰레기 2.5t을 수거했다.

2022년부터 4년 연속 합동으로 진행된 봄맞이 합동 대청소는 공단의 대표 ESG 지속 지역 상생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공단은 횡계3리에 있는 대관령휴게소와 계방산 캠핑장, 광천선굴, 최근 수탁한 진부주차타워 등 11곳을 관리하고 있다.

최순철 이사장은 “지역사회와의 동행은 공단의 중요 책무”라며 “이번 대청소 등 연내 시책 사업을 통해 평창이라는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데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횡계3리 환경정화 [사진=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우정연 기자 wooj2705@naver.com